
주요국 예산안 - 독일

2019. 02.

연구책임자

박한준 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동욱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3
2. 예산기준	5
3. 예산안	7
가. 재정수입	7
나. 재정지출	8
4. 주요 재정정책	13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3
나. 재정건전화	15
다. 에너지정책	16

독일

FY2019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출처

○ Haushaltsgesetz 2019, 2018.7

○ Finanzplan des Bundes 2018 bis 2022, 2018. 7

○ Finanzbericht 2019, 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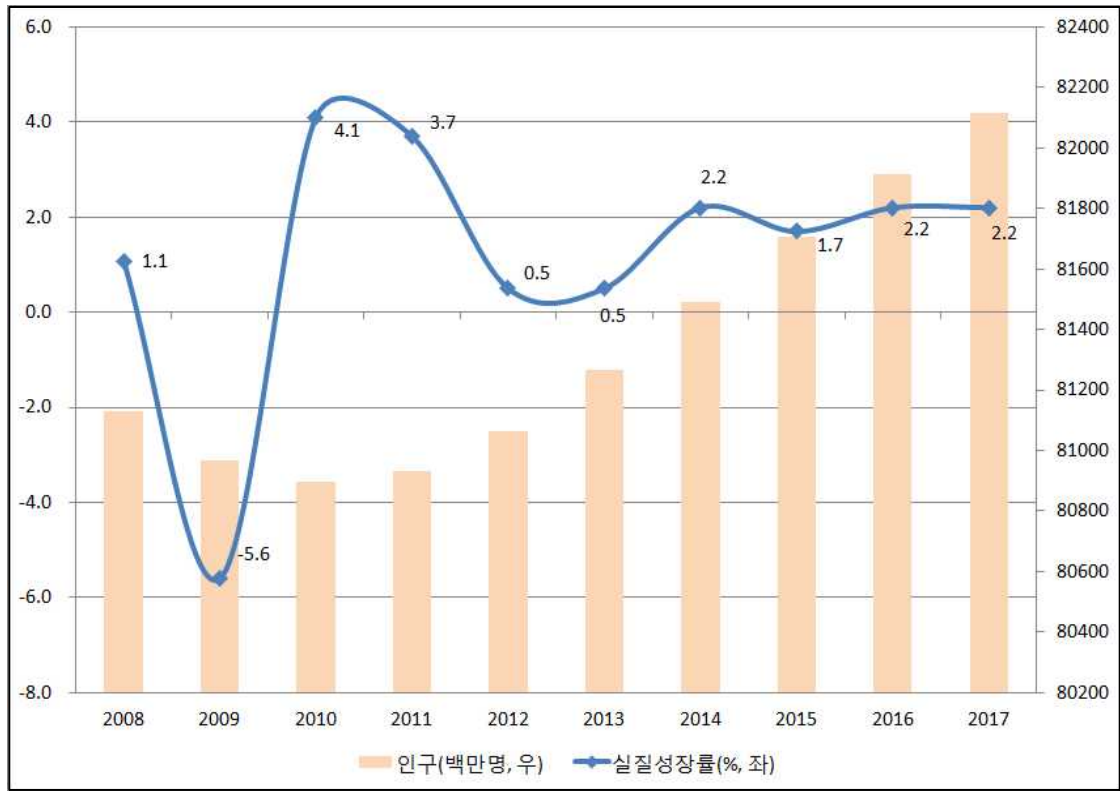
환율: 1유로 = 약 1,301.94원(2018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경제규모 : 2017년 경상GDP 4조 3,456억 달러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 2017년 기준 86.5%(우리나라 2017년 기준 80.8%)

인구 : 8,211만명(2017년 추정치)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독일의 '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수출 및 민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성장약화, 무역분쟁 등으로 '17년 12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하향조정, 실질 GDP 성장률은 '18년 2.0%, '19년 1.9%로 전망
- (재정전망) '19년 재정수입은 3,568억 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2년에는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755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22년까지 GDP 대비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 (예산기조) 인프라, 교육 및 연구, 주택,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세입) '19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8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 유로 편성
- (지출) '19년 재정지출은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편성

□ 주요재정정책

- (교육·연구) 우수대학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정부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목표인 GDP 대비 3%의 R&D지출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
- (디지털) '19년 독일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디지털 특별기금조성을 통해 독일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
- (교통 인프라)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교통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교통인프라계획2030 프로그램(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이행해 나갈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18.1.12.	FY2017 잠정결산 발표
2018.1.31.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8.4.18.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2018.4.19.	독일4대 경제연구소, 2018년 경제전망 발표
2018.5.2.	예산안 및 FY2018-2022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2018.5.9.	제153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8.7.6.	FY2019 예산안 및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18.10.11.	가을경제전망 발표
2018.10.25.	제154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8.11.23.	FY2019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8년 6월 연방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1.9%, 실업률을 4.8%, 소비자물가 상승률 1.7%로 각각 집계됨
 - (경제전망) 독일의 '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수출 및 민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성장약화, 무역분쟁 등으로 '17년 12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하향조정, 실질 GDP 성장률은 '18년 2.0%, '19년 1.9%로 전망
 - '17년 12월 경제전망에서는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을 '18년 2.5%, '19년 1.7%로 전망한 바 있음
 - (재정전망) 최근 지속된 경제호황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일반정부의 재정흑자는 2020년 GDP대비 약 1.5%로 증가될 전망
 - (위험요인) 보호무역주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불확실성, 유가상승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표 1> 경제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2.5	2.0	1.9
실업률	5.7	5.2	4.8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1.8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8.6.15.

<참고 1> 2018년 가을전망보고서(Herbstprojektion)¹⁾

- (배경) 가을경제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에너지경제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수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 (경제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로, 독일의 GDP 성장률을 2018년 1.8%, 2019년 1.8%로 하향 조정)
 - (수출) 2018년 수출 증가율은 2.8%, '19년 3.7%로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 저금리와 높은 수요로 인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건설투자는 내년에도 증가할 전망
- (고용인구) '19년까지 4,5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실업률 또한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7	2018	2019(전망)
실질 GDP 성장률	2.2	1.8	1.8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8	1.6	2.0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1.5	1.4	2.5
총투자 증가율	2.9	3.0	2.7
설비투자	3.7	4.5	2.6
건설투자	2.9	3.0	3.0
수출 증가율	4.6	2.8	3.7
수입 증가율	4.8	3.6	4.9
고용인구(백만명)	44.3	44.9	45.3
실업인구(백만명)	2.53	2.35	2.24

자료: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18

1) 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8.10.11.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8/20181011-altmaier-aufschwung-geht-bereits-ins-zehnte-jahr.html>
 2) 2018년 4월 경제에너지부의 봄전망(Frühjahrsprojektion) GDP 성장률은 '18년 2.3%, '19년 2.1%로 전망한 바 있음

나. 재정전망

- '19년 7월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기록적인 고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이 지속될 전망
 - (재정지출) '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 유로이며, '22년에는 3,755억 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입) '19년 재정수입은 3,568억 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2년에는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755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19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전망
 - (국가채무) 안정성장협약에 의하여 '19년까지 GDP 대비 60% 이하 목표수준을 조기 달성할 전망이며, '22년까지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 '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9년 58%, '20년 55.75%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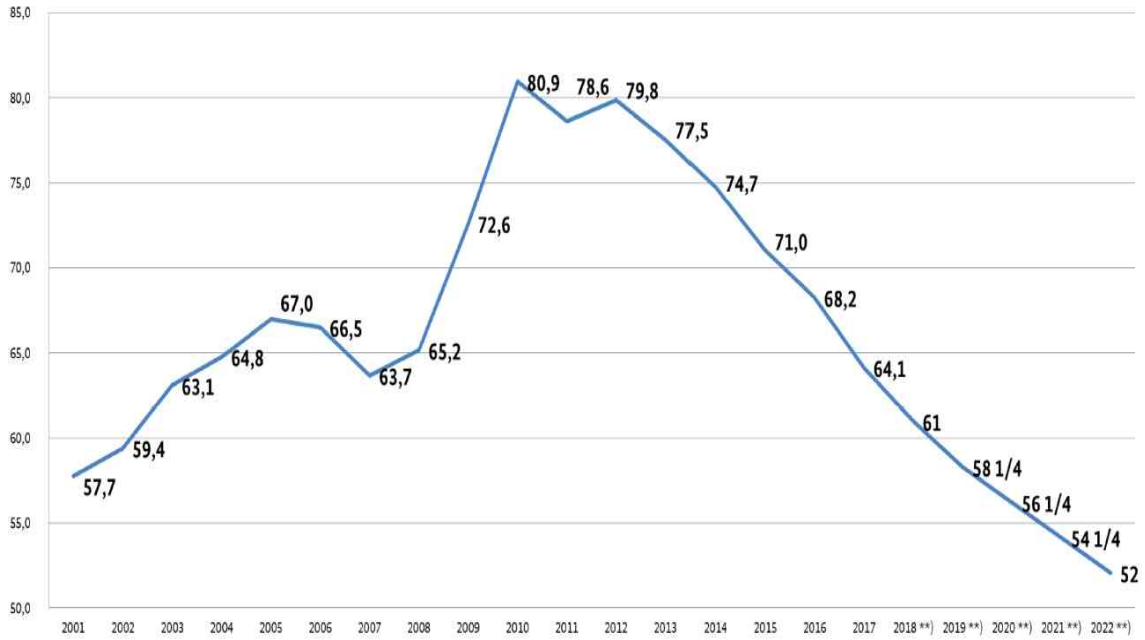
<표 2> FY2019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 억 유로, %)

	2018	2019	중기재정계획		
			2020	2021	2022
재정지출	3,436	3,568	3,632	3,693	3,755
전년 대비 증감률(%)	3.9	3.8	1.8	1.7	1.7
재정수입	3,436	3,568	3,632	3,693	3,755
조세수입	3,213	3,330	3,338	3,468	3,597
신규차입	-	-	-	-	-
투자	374	379	379	379	379
국가채무(GDP 대비 %)	61	58	55.75	54	52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 07)

[그림 1] 독일 국가채무 추이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 07)

2. 예산기조

- 인프라, 교육 및 연구, 주택,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인프라투자)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지방투자기금, 건설지원 기금 등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³⁾에 24억 유로 투자할 전망
 - (교육·연구) 교육, 과학, 연구분야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2년까지 총 95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 (내치) 연방경찰과 관세청 인력강화를 위해 내무부 예산을 전년대비 30억 유로 증액할 계획
 - (국방·개발협력)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0억 유로 증액될 예정이며, 국제경제개발협력 분야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한 97억유로(전년대비 10억유로 증가)로 집계
 - (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년, '21년 각각 1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자녀수당(Baukindergeld)⁴⁾을 통한 자가 부동산 취득을 촉진할 계획
- 연방하원은 11월 23일 정부안 대비 약 4억유로 감액된 3,564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 예산안을 통과⁵⁾
 - 지난 7월 6일 연방정부는 3,568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

3) 특별기금(Sondervermögen):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설된 회계로 기본적으로는 각급정부의 예산과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며, 공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특별기금의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원칙법에 규정된 연방과 주의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됨

4) 주택자녀수당은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1명당 연 1,200유로를 10년간 지급

5) 연방정부, Presse, 2018.11.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icherheit-fuer-kommende-generationen-1552714>

<참고 2> FY2018 잠정결산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동일 수준을 나타내면서 신규차입 0 기록
 - (재정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3,436억 유로로 기존 지출목표대비 47억 유로 높게 집계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EU자체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11억 유로 상회하는 등 2018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47억유로 많은 3,483억 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5%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⁶⁾ 기준 대비 0.5%p 높은 수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8(목표)	2018(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436	3,483	+47
재정수입	3,436	3,483	+47
조세수입	3,213	3,224	+11
세외수입	207	259	+53
목적예비비	16	-	-16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01.15.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GDP 대비 %)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19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8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 유로 편성

- (조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하여 '19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3.64% 증가한 3,330억원 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 대비 6.72% 증가한 238억 유로 규모임

<표 3>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 억 유로, %)

	2018 (A)	2019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	3,213	3,330	3.64
소득세 ¹⁾	1,139	1,216	6.76
소득세·법인세 ²⁾	306	317	3.59
부가가치세	1,157	1,244	7.52
수입부가가치세	20	21	5.00
담배세	142	141	-0.7
코냑세	21	21	0.00
에너지세	328	328	0.00
전기세	69	69	0.00
기타연방세	32	-9	-128.13
세법상 계획 변경 및 수익 조정	0	-18	-
세외수입	223	238	6.72
재정수입	3,436	3,568	3.84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자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2018.8, p.63

6)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61)

나.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지출은 2018년 3,436억 유로에서 2022년 3,755억유로까지 상승 할 전망이며, 교통인프라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기반투자, 교육·연구, 사회적 평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부) 연방교육지원법(BAföG)⁷⁾ 개혁에 따라 '19년 1.1억유로에서 '21년 4.4억 유로로 청년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⁸⁾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부 예산은 전년대비 3% 증액된 181억 유로 편성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과 NATO 협의에 의한 독일연방군(Bundeswehr)의 해외공관 지출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1.4% 상승한 429억 유로 편성
 - (경제협력개발부)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äre Hilfe), 위기방지 지출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9년 3.0% 상승한 97억 유로 편성
 - (환경부)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Inter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⁹⁾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4.6% 상승한 22.6억 유로의 예산 편성
 - (에너지경제부)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Hightech-Strategie) 등 R&D펀드에 1.3억 유로 증액, 중소기업 디지털 활성화를 위해 0.3억 유로 추가 지원 등 전년대비 0.8% 감액된 80.5억 유로의 예산 편성
 -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22년까지 계획된 간선도로망 건설, 대기질개선프로그램

7) 연방교육지원법(BAföG):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교육지원법은 청년들에게 생활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지원 대출법이며, 주거비, 중산층 지원, 채무감축을 위해 기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예: 기존 매월 250유로를 지원했던 주거비를 325유로로 인상, 생활비 또한 기존 최대 735유로에서 850유로로 인상). 관련법은 2019년 가을에 입법화 될 예정(연방교육연구부, 2018)

8)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2015~2020년간 14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9)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펀드 재원은 배출권 거래의 경매수익 및 환경부(BMU)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기후보호 기금은 2019년 2,000만유로에서 2021년까지 5,000만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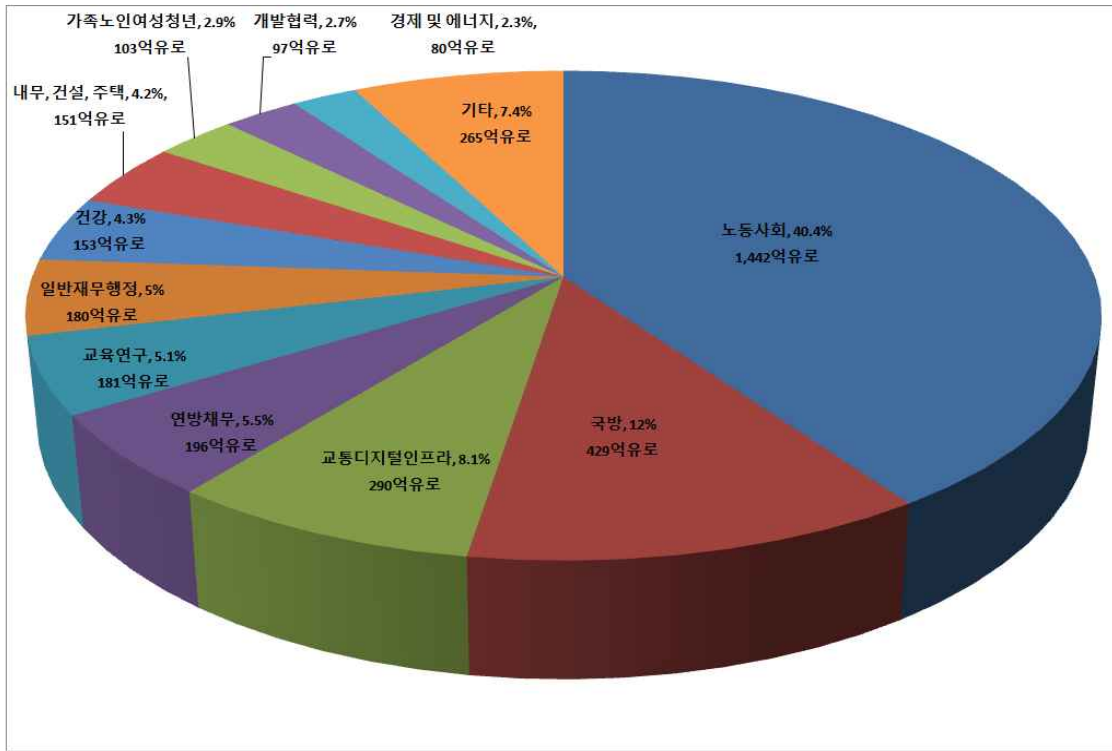
(Sofortprogramm SaubereLuft 2017-2020)¹⁰⁾을 지원하는 등 교통·디지털 인프라 부 예산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290억 유로의 예산 편성

- (노동사회부) 구직자 지원,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지출증가로 3.6%(20억유로) 증액된 1,442억 유로 편성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해 1인당 자녀양육비 지원¹¹⁾, 주간 탁아소 등 보육시설 질향상과 전일제학교 지원을 위해 '19년~'22년 동안 각각 55억 유로 증액할 계획, '19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103억 유로 편성
- (내무부) 연방경찰(Bundespolizei) 및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에 지원하는 등 국내보안에 54억 유로 편성, 내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50억 유로 편성

10) 대기질개선프로그램 2017-2020: 동 프로그램은 전기차전환정책, 노후디젤차량개선, 도심차량시스템 디지털화 등 2017년에 새롭게 도입된 긴급프로그램임

11) '19년 7월 1일부터 매월 10유로씩 증액(연방내각에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가정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한 가족구제법(Familienentlastungsgesetzes) 초안 채택)

[그림 2]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Regierungsentwurf zum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7.6.

<표 4>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8 (A)	2019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1.85	47.37	5.52	13.2
연방하원	973.69	974.86	1.17	0.1
연방상원	30.44	37.50	7.06	23.2
총리실	3,038.05	3,097.01	58.96	1.9
외무부	5,450.63	5,573.39	122.76	2.3
내무부	14,133.57	15,063.31	929.74	6.6
법무부	792.35	876.58	84.23	10.6
재무부	6,554.91	7,179.43	624.52	9.5
경제에너지부	8,115.03	8,053.97	-61.06	-0.8
식품농업부	6,019.16	6,245.34	226.18	3.8
노동사회부	139,179.76	144,206.16	5,026.40	3.6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7,852.06	29,003.80	1,151.74	4.1
국방부	38,519.57	42,901.28	4,381.71	11.4
보건부	15,207.13	15,270.40	63.27	0.4
환경부	1,978.82	2,267.08	288.26	14.6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0,226.15	10,304.77	78.62	0.8
헌법재판소	30.81	34.34	3.53	11.4
회계감사원	148.78	162.04	13.26	8.9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7.77	25.22	7.45	41.9
경제협력개발부	9,441.83	9,725.34	283.51	3.0
교육연구부	17,614.03	18,145.54	531.51	3.0
연방채무	19,414.05	19,591.19	177.14	0.9
일반조세행정	18,816.54	18,014.08	-802.46	-4.3
재정지출	343,600.00	356,800.00	13,200	3.8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9*, 2019.8

<표 5> 2017-2022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보장	167,707	172,137	177,496	183,065	189,927	194,160
국방	31,196	32,805	36,886	36,861	37,747	37,713
영양·농업·건강	1,222	1,420	1,558	1,658	1,629	1,604
경제·에너지	5,156	6,427	5,658	7,848	6,036	5,840
교통	26,488	26,469	27,557	26,243	27,713	27,790
건설	2,738	3,325	3,520	3,284	3,261	2,129
연구·교육·문화	23,026	24,245	24,814	24,851	24,589	24,648
환경보호	1,413	1,876	2,360	2,318	2,057	2,010
스포츠	161	182	189	191	188	188
내무·이민	7,283	7,680	8,069	8,109	8,010	8,074
경제협력개발	8,330	9,389	9,643	8,705	8,537	8,537
일반재무	26,688	27,312	28,551	29,010	29,338	29,606
특별기금	770	5,350	3,157	3,000	2,962	2,93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2018.8, pp. 18-20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교육·연구) 우수대학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정부는 유럽 2020(Europe 2020 strategy)¹²⁾ 목표인 GDP대비 3%의 R&D지출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¹³⁾
 - (우수대학육성정책) 독일 최상위 대학의 연구지원정책인 우수대학정책(Exzellenzstrategie)¹⁴⁾을 위해 '19년 4.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고등교육 지원) 2015~2020년까지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었던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을 2021년 1.5억유로, 2022년 6억유로로 지원을 연장할 계획
 - (직업훈련) 디지털 미디어분야 관련 직업훈련 4.0(vocational Training 4.0)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직업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식이전을 지원할 계획
 - (바이오산업 육성) 신경퇴행질환, 암 전이연구, 당뇨병, 심혈관, 감염 및 폐질환 등 독일 건강연구센터 연구지원을 위해 '19년 2.5억유로 투자
- (디지털) '19년 독일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디지털 특별기금조성을 통한 독일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¹⁵⁾
 - (특별기금)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4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
 - (중소기업지원) 연방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ZIM) 규모는 '19년 0.1억 유로 증가한 5.6억 유로로 집계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사업프로세스

12) 유럽 2020전략: 유럽집행위는 고용창출, R&D투자,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 9가지 주요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매년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2020년까지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EC, 2018)

13)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연방경제에너지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8

14) 우수대학육성정책: 독일은 '18년 대학의 첨단연구 지원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연간 5.3억유로(연방정부 75%, 지방정부 25% 지원)를 지출할 계획(연방교육연구부, 2018)

15)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경제에너지부, 2019년 예산안 설명자료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에 지원할 계획

- (초소형 전자공학) '25년까지 유럽의 전자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3년 5월 초소형 및 나노전자 유럽집행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독일정부는 '19~'22년 동안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교통 인프라)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교통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¹⁶⁾, 교통인프라계획2030 프로그램(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이행해 나갈 계획
 - (연방 교통인프라 계획) 교통인프라계획 2030 프로그램은 운송인프라의 유지 보수 및 수리뿐만 아니라 1,00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총 2,69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¹⁷⁾
 - 연방교통인프라부는 10~15년마다 연방운송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연방교통인프라계획 2003에서 2016년 8월 연방교통인프라계획 2030로 기본계획을 확장함
 - 이 중, 도로 49.3%, 철도 41.6%, 수로 9.1%에 비중을 둘 계획
 - (민관협력사업) 연정정부는 '17년 고속도로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자금조달 및 용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법안을 상정한 후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방도로에 약 2.2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대기오염) 디젤차량의 이산화질소 배출 감소를 위해 총 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16) 독일의 교통인프라투자는 '12년 101억 유로에서 '19년 148억유로 대폭 증가

17)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2018) Infrastruktur als Grundlage für Wachstum, Arbeit und Wohlstand

나. 재정건전화

- 연방내각은 EU회원국들의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안정화 프로그램 제출
 - (경제전망) 강한 내수시장, 수출호조 추세, 낮은 이자비용으로 2018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이며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호황으로 설명
 - '19년 이후 점진적인 하락 전망
 - (재정전망) 독일의 재정수지는 '17년 GDP 대비 1.1%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주 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높은 흑자로 '19년에는 1.0% 흑자 전망
 - (국가채무) '18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3.1%p 감소한 61%로 전망되며, '20년 까지 계획된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대비 60%이하를 '19년에 조기에 달성할 전망
 - (재정정책)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 friendly consolidation) 정책으로 교육·연구, 인프라에 집중 투자

<표 6>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01	2022
실질 GDP 성장률	2.2	2.4	1.9	1.3	1.3	1.3
재정수지	1.1	1.0	1.25	1.5	1.5	
구조적 재정수지	1.3	0.5	0.75	1.0	1.5	
국가채무	64.1	61	58.25	55.75	53	

자료: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8*, 2018.4.18

-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안정화위원회 (Stabilitätsrat)에서는 독일의 재정현황 및 주정부 재정건전화에 대해 논의¹⁸⁾
 - (재정) 2017년 독일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이며, 2018년에는 GDP 대비 1.0%의 구조적 재정흑자를 달성할 전망
 - (주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위원회는 브레멘, 자알란트에 대해 '17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¹⁹⁾ 충족과, 2020년까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재건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4개주(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에 대한 건전화계획을 2016년까지 수립함
 - 이후 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브레멘, 자알란트 등 2개 주에 대한 건전화계획을 재수립

다. 에너지 정책²⁰⁾

- '19년 연방정부는 58.7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²¹⁾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 할 계획
 - (수입) 탄소배출권 수익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2.2% 하락
 - (지출) 프로그램지출은 총 46억유로로 집계되었고 건물개보수지원프로그램 (KfW-Programme zur CO₂ Gebäudesanierung)²²⁾과 대기청정2017-2020 (Aktionsprogramm Saubere Luft 2017-2020)²³⁾에 우선순위 설정

18) 독일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6.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8-06-26-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19) 채무제한법 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GDP 대비 0.35% 이하 달성)

20)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pp. 43-44

21)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22) 건물개보수지원프로그램: 국가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거용 건물에 m²당 최소 40kg의 CO₂ 삭감 및 에너지효율을 목표로 저금리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3) 대기청정2017-2020: 2017년 긴급 편성된 대기청정2017-2020 프로그램은 도시교통의 전동화, 교통시스템 디지털화, 디젤버스 개조(retrofit)를 위해 약 10억유로 편성

- CO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관련 지출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와 준비금전입 관련 지출은 하락함

<표 7>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 억 유로)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60.0	58.7	56.4	48.8	47.9
탄소배출권 수익금	15.9	12.1	14.4	17.2	19.0
연방정부 지원금	28.0	30.5	29.5	29.1	28.9
준비금	16.1	16.1	12.5	2.5	
지출	60.0	58.7	56.4	48.8	47.9
CO 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13.8	19.8	21.4	20.3	18.6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6.7	5.8	7.6	6.1	6.2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18.0	14.8	17.0	18.2	48.6
기후 변화 프로그램	2.1	2.3	3.8	4.5	4.5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2.9	2.9	3.1	3.6	3.8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0.4	0.6	1.0	1.0	1.2
준비금전입	16.1	12.5	2.5	-	-
세계부족분	-	-	-	-4.9	-5.0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pp. 43-44